

『花郎世紀』의 文脈的 檢討(1)

- 序文과 魏花郎 -

尹 榮 玉

1

年前에 釜山에서 『花郎世紀』라는 책이 세상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 책은 그 實體나 價値마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또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상 金大問의 『花郎世紀』가 귀중한 역사적 문헌일 것이라 추측한다면 釜山에서 처음 세상에 나타난 이 『花郎世紀』는 신문의 뉴스거리로만 취급해 버리고 말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이 『花郎世紀』를 번역한 釜山地方의 漢文學者 李泰吉氏의 解題를 옮겨 본다.

이 「화랑세기」는, 현재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 金京子씨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이다. 이 책자의 소장 경위에 대해, 필자가 몇 차례 만나본 김씨의 말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김씨의 시댁은 충청북도 괴산군인데 그와는 본관이 다른 金海金氏로서 가산이 넉넉하였고 漢文 古書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의 시아버지는 김씨의 남편 金鍾鎭에게 국민학교 입학전서부터 한문을 가르쳤고, 국민학교 입학 후에도 오후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을 공부하게 하다가 6·25사변 중에 서울에서 피난해 온 朴昌和를 가정교사로 모셔 놓고 김종진형제에게 계속해서 한문과 국사를 공부하게 하였다. 박창화는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노령으로 퇴임한 사람으로서, 이후 10여년간 김종진형제를 가르치다가

1976년경에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제자인 김종진에게 “너는 두뇌도 명석하고 집안에 회귀한 고서가 있으니 그 책들을 깊이 연구하여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자주 말하였다.

1976년 김씨부부가 결혼한 후, 만아들 政熙의 돌날인 1978년 6월 16일에 남편이 “이 책은 귀중한 우리나라 역사책이니 우리집안의 종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이 「화랑세기」를 독상에 얹었고, 이 때 김씨가 이 책을 처음 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이 책이 그저 남편이 아끼는 고서란 것만 알았지 어떤 내용의 것인지는 전연 몰랐다. 둘째 아들 관희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남편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종진은 청주고등학교를 거쳐 부산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였는데도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한국 고대사에 관한 연구 논문의 유고가 많이 남아 있으며,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고서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후 김씨는 경영하던 유치원에서 손을 떼었고, 지난해 비로소 남편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이 「화랑세기」를 차분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백과사전과 국사책을 통해 이 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10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김철준박사를 만나 감정을 의뢰하였더니, 김박사는 화귀한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 책을 맡기고 가라고 하였다. 김씨는 대대로 전해 오는 가보를 함부로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후일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금년 1월 김박사가 작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부산시 문화재감정관 양명준씨를 찾아 상의하였는데, 양명준씨에 의해 금년 2월 16일자로 부산 「국제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잇달아 서울의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몇 일간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이 책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필사본은 총 16장 32면이요, 매면 10행, 1행 24자로 쓰여져 있다. 책머리에는 서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행 적혀 있고, 이어서 제1세 風月主 魏花郎에서부터 15세 金庚信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기술하였으며, 14세 풍월주까지는 그 행적을 적은 끝에 반드시 〈贊〉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김유신편은 중도에서 落張이 되어 버렸고, 6면까지에는 頭注형식으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世系를 도표로 기재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版本으로 잘못 볼 정도로 첫자부터 맨 끝자까지 같은 크기로 정갈하게 써서 매해 정확하게 24자씩인데, 필사하는 도중에 빠뜨린 글자를 잔 글씨로 기워 넣은 것이 3군데 나온다. 贊을 쓸 때는 줄을 바꾸었다. 그래서 전문 320행에 글자 수는 모두 7,406자이다.

이 「화랑세기」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필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방면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용지의 紙質로 보아서 줄잡아도 150년 이전의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이 책은 지은이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母本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쓴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처럼 『花郎世紀』가 150여년 전에 傳來된 것 같다고 하였는데, 《花郎世紀의 등장인물을 살핀다》는 글에서 박지홍은

“「화랑세기」는 1천2백년 전에 기술된 문헌인 만큼, 이 책이 세상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 또한 이 책이 혹시 위작이 아닐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게 되었다”

고 金大問의 『花郎世紀』임을 전제하고는,

“1) 이 책은 만약 위작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선조 세종 이전에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왜냐면 이 책에는 ‘世宗’이란 이름이 24번이나 나타나는데, 누군가가 거짓 꾸몄다면 세종 이후에 있어서는 결코 대 성군인 “세종”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는 고려 명종(김부식이 죽은지 반세기가 되던 시대의 임금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김부식의 「三國史記」에 이 책이 아직 전해 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책이 위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려 명종~조선조 세종 사이에 된 것이 분명하니, 그렇게 본다면 이는 적어도 5백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다.

2) 또 이 책이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의 그릇 전함이 없이 솔
곳이 그대로 전해 왔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겠다. 왜냐면 지난 3월 2일자
「서울신문」에서 이재호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서문에 ‘法興大王
愛魏花郎名曰花郎之名始此’란 글귀가 나타나는데, 이 월에서 ‘曰’은 불완전동
사이므로 반드시 보어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월에는 보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曰’의 보어는 ‘花郎’이다.

그러니 이 월의 원문은 틀림없이 ‘法興大王愛魏花郎, 名曰花郎, 花郎之名
始此’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 책은 진본으로 판단되더라도 부분부분에 그릇
된 곳이 있으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3) 마무리 하면, 이 책은 비록 위작으로 밝혀지더라도 넉넉잡고 5백년 전
에 이루어진 것이니, 사료적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진본으로 판명되더라도 부분부분에 얼마간의 그릇 전함이
있으리란 것은 부정할 수 없겠으며, 특히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고 말하면서 “어떻든 이 책은 위작이라 하더라도 5백년도 더 전에 지어
진 것이니 문헌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李載浩는 《花郎世紀의 史料的 價値》라는 글의 맺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花郎世紀」가 김대문의 저술임이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점은, 花郎의
世系를 소상히 기술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나 뒷 세상의 사람이 어찌 남의 집안의 世系를 이처럼 소상하
게 기술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김대문의 저술을 뒷 세상 사람이 傳寫했기
때문에 그 베껴쓰는 과정에서 글자가 혹 누락된 것과 틀린 것이 눈에 띄이
기도 하는데, 그 누락된 것은, 이 책의 머리말 “法興大王 愛魏花郎 名曰花郎
之名始此”란 글귀를 살펴보면 ‘名曰花郎’의 다음에 분명히 ‘花郎’이란 두 글
자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겠다.

한편 우리 國學界의 일부 古代史 연구자들은 이 책의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대문의 저술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책의 내용이 ‘花郎’이란 제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또 첫장에서 花郎制度의 源流가 중국 古代의 것을 모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이 책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한다면,

이 책은 첫째 ‘花郎世紀’란 명칭이 표시하듯이 新羅歷代 花郎 風月主의 世系만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花郎의 活動相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며, 또 중국 고대의 것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이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가 中國文化 특히 東北方文化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밖에 ‘部曲’이니 ‘公主’니 하는 용어가 高麗時代에 쓰여졌다는 이유로써 이 책이 新羅時代의 作品인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은 용어를 잘못 해석하고 고대 기록을 널리 고증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臆斷에 불과하다.

이 책에 수록된 記事가 傳寫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文句와 틀린 글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여기에 수록된 이 資料만으로서도 신라 花郎制度의 起源과 社會的 機能은 넉넉히 類推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新羅社會의 片貌도 엿볼 수가 있는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釜山地方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 『花郎世紀』는 肯定的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著者가 金大問이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三國史記』의 두 기록,

- 金大問 本新羅貴門子弟 聖德王三年
爲漢山州都督 作傳記若干卷 其高僧傳
花郎世紀 樂本 漢山記猶存 (列傳六)
- 故金大問花郎世紀曰 賢佐忠臣從此以秀
良將勇卒由有是以生 (眞興王 37年條)

에서 ‘花郎世紀’가 아닌 ‘金大問의 花郎世記’라 쓰여 있고, 또 『花郎世紀』에는 著者が 明記되어 있지 않고, 本文의 敘述 가운데서 敘述者를 내비친 두 글귀에,

- 比臺公의 딸 開元宮主는 銅輪太子를 섬겨 아들을 두었다. (魏花)公의 아들 二花郎은 곧 俊室夫人이 낳았다.

俊室은 守知公의 누이요 慈悲王의 外孫이다. 美色에 文章까지 잘하여 처음에는 法興大王의 後宮이 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여 (魏花)公에게 가서(二花郎)을 낳았으니 또한 美貌에 文章을 잘했다. 只召太后가 그를 사랑하여 그는 늘 곁에서 모셨다. 太后의 딸 淑明宮主가 그를 좋아하여 도망나가 아들을 낳으니 이가 圓光祖師로 우리 東方의 大聖人이다. 圓光의 아우 菩提沙門은 곧 나의 曾祖다.(魏花郎條의 末尾)

- 圓光의 아우 菩提는 肅太子의 딸 萬龍에娶하여 禮元角干郎을 낳았으니, 그는 나의 할아버지이다.(二花郎條의 末尾)

라고 쓰여 있는데, 이로 보면 敘述者의 할아버지는 禮元角干이요, 曾祖는 圓光法師의 아우인 菩提沙門이다. 그래서 이 『花郎世紀』의 敘述者는 第1世 風月主인 魏花郎의 五代孫인 셈이다. 그런데 이 敘述者의 從曾祖가 되는 圓光은,

唐 續高僧傳 제13권에 실려 있는데, 新羅 皇隆寺의 釋圓光은 그 俗姓은 朴氏로 본래 三韓에 살았으니, 卞韓 辰韓 馬韓 가운데 圓光은 곧 辰韓 사람이다. 그 집안은 대대로 海東에 살아 그 조상들이 끈임없이 이어져 그의 神器는 매우 넓고 文章을 좋아했으며 玄儒를 섬렵하고 子史를 연구하여 文華가 三韓에 빛났으나 그 넓고 풍부한 知識으로야 中原에 비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드디어 친척과 벗들을 이별하고 바다를 건너고자 發憤하였다. 나이 스물다섯에 배를 타고 金陵으로 갔다.……

또 東京 安逸戶長 貞孝의 집에 있는 古本殊異傳에 실려 있는 圓光法師傳

에서는 法師의 俗姓은 薛氏요 王京人이라 하였다.

논의하건데,위 唐·鄉 두 傳의 글에 근거할진대 다만 姓氏가 朴과 薛, 出家함이 東西로 달라 마치 두 사람 같아 감히 상세히 단정할 수 없어 두 글을 다 실어 둔다. 그러나 저와 같은 傳記에는 다 鶴岬 瑠目과 雲門의 일들이 실려 있지 않은데, 鄉人 金陟明이 巷間의 이야기로 圓光法師의 傳을 그릇 꾸며 지어 雲門 開山祖 寶壤의 사적을 마구 기록해 넣어 그 둘을 하나의 傳으로 만들어 뒤에 海東僧傳을 撰한 자들이 그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여 사람들이 크게 迷惑되었으므로 이에 分辨하고자 一字도 加減치 않고 두 傳의 글을 자세히 실어 둔다(三國遺事, 圓光西學).

와 같이 一然에 의해 기록될 정도로 그 出自가 確然히 밝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金氏’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 『花郎世紀』에서도 魏花郎과 俊室夫人 사이에서 태어난 二花郎이 菩宗과 只召太后 사이에서 태어난 叔明을 맞아 얻은 四男妹(圓光 菩利 花明 玉明) 가운데 만이가 圓光으로 서술해 두고 있다. 그러니 이 『花郎世紀』의 撰述者를 金大問으로 斷定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면 이 책이 紙質로 보아 줄잡아도 150년 이전의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박지홍은 本文中에 ‘世宗’이란 이름이 24번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朝鮮朝에서는 避諱하였을 것으로 보고, 金富軾의 『三國史記』에 이 책이 아직 전해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高麗 明宗~朝鮮 世宗 사이에 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이 책이 150년전에 筆寫되었을 것이란 見解와는 相衝된다. 그러기 때문에 李泰吉이 解題의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花郎世紀』가 김대문이 지은 『화랑세기』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 의해 僞作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단지 서지학적, 문헌학적 고증만이 아니라, 社會史的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덧붙인 것은 ‘偽作’이란 말을 다른 사람의 또 다른 「花郎世紀」로 보았다면 솔직한 고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第1世 風月主라는 魏花郎부터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에 앞서 이 책의 序文을 다시 읽어야 하겠다.

2

魏花郎에 앞서,

- ① 花郎者仙徒也.
- ② 我國奉神宮 行大祭于天 如燕之桐山 魯之泰山也.
- ③ 昔燕夫人好仙徒 多畜美人 名曰 國花. 其風東漸 我國以女子爲源花.
- ④ 只召太后廢之 置花郎 使國人奉之.
- ⑤ 先是 法興大王愛魏花郎 名曰 花郎 (花郎)之名始此.
- ⑥ 古者仙徒 只以奉神爲主. 國公列行之後 仙徒以道義相勉.
- ⑦ 於是 賢佐忠臣從此而秀 良將勇卒由是而生 花郎之史不可不知也.

라는 序文이 있다. 이 序文은 ‘花郎’에 대해 설명하고 화랑의 歷史를 不可不 알아야 하므로 이 『花郎世紀』를 쓴다는 著者の 趣旨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文①에서 “花郎이란 것은 仙徒이다”라고 규정하였다. ‘仙徒’란 仙의 무리란 뜻이겠다. 이 책을 지을 때 讀者일 수 있는 사람들은 仙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는 말로써 未知의 事象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仙은 崔致遠이 《鸞郎碑序》에서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그것을 일러 風流라 한다. 設敎의 根源이 仙史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했을 때의 ‘仙’이라 할 것이다. 곧 風流·風月을 일삼은 무리를 일러 ‘仙徒’라 하였을 듯하다. 아마 이들은 俗事에 얽매이지 않은 무리들이었

을 것이다.

文②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크게 제사하였는데, 燕의 桐山과 魯의 泰山에서 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三國史記』 권32 祭祀條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第2代 南解王 3년 봄 비로소 始祖 赫居世廟를 세워 四時에 제사하였다. 왕의 누이 阿老로 主祭케 하였다. 第 22代 智證王은 始祖가 誕降한 奈乙에 神宮을 창립하여 제사하였다.…… 또 이르기를, 天子는 天地와 天下의 名山 大川에 제사하고, 諸侯는 社稷과 자기 영역의 名山 大川에 제사한다.……

南解王代 세워 모신 始祖廟를 智證王代에는 神宮으로 만들어 제사하였고, 天地와 名山 大川에도 祭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逸聖尼師今은 그의 5년 겨울에 北巡하여 太白山에 친히 제사했다는 기록도 있고, 『三國志』의 東夷傳에서는 “祭天大會”를 많이 보고해 주고 있다.

燕의 桐山과 魯의 泰山에 대한 來歷은 잘 알 수 없지만, 新羅에 있어서의 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크게 제사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文①과 文②는 仙徒와 祭祀의 관계로 文脈이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文③에서는 文脈이 전환된다. “옛적에 燕夫人은 仙徒를 좋아하여 美人을 많이 養育하고 그 美人들을 ‘國花’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 와서 우리 나라에서도 女子로 源花를 삼았다.”고 하였다. 美人으로 仙徒를 삼아 그것을 일러 國花라 한 그 風俗이 新羅에 들어와 新羅에서도 女人으로 仙徒를 삼고 그것을 일러 ‘源花’라 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燕夫人과 國花를 잘 알 수 없으며 ‘源花’는 아름다운 女子들이었고, 이들은 다 ‘仙’을 指向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밖에 없다. 그 模型이 혹 始祖廟에 主祭한 南解王의 누이 阿老가 아니었던가 한다.

文④에서는 “只召太后가 源花를 폐지하고 花郎을 두어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花郎을 받들게 하였다.”고 花郎이 源花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준다. 只召는 法興王과 그의 正妃 保道夫人 사이에서 태어나 法興王의 아우 立宗과 결혼하여 眞興王을 낳은 眞興王의 어머니이다. 法興王에게 王位에 오를 太子가 없어 그의 조카 眞興王이 七歲로 王位에 올라 幼少하기에 先王의 딸이기도 한 王太后로 只召太后가 攝政하였다. 源花를 폐지한 내력을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眞興王 37년 봄 처음 花郎을 만들었다. 앞서 君臣이 知人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病痛으로 여겨, 類聚 群遊케 하여 그 行義를 보아 천거해 쓰고자 하였다. 드디어 南毛와 俊貞 두 美女를 簡擇하였더니 모여든 무리가 3백여 인이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고 서로 질투하여 俊貞이 南毛를 집으로 데려가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매 끌고 가 물에 던져 죽였다. 그 리하여 俊貞도 죽임을 당하고 무리들은 다 흩어졌다.(三國史記)

第24 眞興王……백부 法興王의 뜻을 崇慕하여 一心으로 부처를 모시고 佛寺를 널리 일으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중이 되게 하였다. 또 天性和 風味가 神仙을 매우 숭상하여 人家의 아릿다운 娘子를 뽑아 原花로 삼았다. 聚徒·選士하여 孝悌忠信을 가르치고자 함이니 이는 또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큰 要諦라, 그래서 南毛娘과 俊貞娘 두 原娘을 뽑았더니 모여든 무리가 3·4백명이나 되었다. 俊貞娘이 南毛娘을 질투하여 南毛娘에게 술을 많이 먹여 취하자 北川으로 끌고가 물속에서 돌로 묻어 죽였다. 그 무리들이 간 곳을 몰라 슬피 울다가 흩어졌다. 그 謀殺을 아는 사람이 있어 노래를 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부르게 하였더니, 그 무리들이 듣고 北川에 가서 그 屍身을 찾고는 俊貞娘을 죽였다. 이에 大王이 下命하여 原花를 폐지하였다(三國遺事).

이처럼 花郎과 源花의 사실이 眞興王과 상관되어 있으나 文④에서는

眞興王의 母后인 只召太后와 상관되어 있다. 그리고 『花郎世紀』의 本文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未珍夫公은 阿時公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는 三葉宮主로 곧 法興大王의 딸이다. 꿈에 白鶴을 보고 낳았는데 (未珍夫)公은 美貌에 多才하여 法興大王이 그를 사랑하여 比臺公과 함께 宮中에서 자랐다. 그 때 玉珍宮主에 대한 (法興王의) 사랑이 대단하여 只召太后가 (法興王이 比臺로 太子를 책봉하면) 正統으로서 세우기 어렵기에 三葉과 阿時公이 옹호하여 太后가 三葉과 未珍夫公을 사랑하였다.

太后가 聽政함에 미쳐 未珍夫로 嬖臣을 삼았는데 나이 열여섯이나 능히 마음에 들게 행동하였다.

이에 앞서 三山公의 딸 俊貞이 源花가 되어 郎徒를 많이 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法興大王의 딸 南毛公主란 자는 百濟 寶果公主가 낳았는데 또한 絕色으로 未珍夫公과 서로 매우 좋아하여 太后가 未珍夫를 사랑하기에 南毛를 도와 源花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法興大王은 玉珍宮主가 私家에 있을 때의 남편 英失公을 龍陽君으로 삼아 왕의 사랑이 대단하였는데 명하여 源花를 革破하게 하여, 그러므로 俊貞이 그를 열심히 섬겨 南毛를 沮破하게 하였다. 只召太后는 비록 遺命으로 英失을 繼夫로 삼았으나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 未珍夫에게 명하여 源花를 혁파케 하였다. 太后는 또한 郎徒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魏花公의 郎徒를 소속시켜 (南毛의 郎徒)를 감절로 늘였다. 俊貞이 그것을 질투하여 술로써 (南毛를) 띄어 물에서 그를 해쳤다. 南毛의 郎徒가 그것을 밝혀내어 太后는 곧 源花를 폐지하고 仙花로 花郎을 삼아 그 무리를 '風月'이라 부르고 그 우두머리를 '風月主'라 하였다.

아마도 只召太后가 섭정하기 이전 法興王代에 이미 三山公의 딸인 俊貞이 源花가 되어 많은 郎徒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只召太后가 섭정하매, 法興王이 太子일 때 맞이한 百濟의 公主 寶果에게

서 태어난 南毛娘을 源花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결국 南毛는 源花가 되었는데, 俊貞이 南毛를 妬忌하여 술로 띄워 물에서 그를 죽였으므로 只召太后가 源花를 폐지하고 仙花로 花郎을 삼았다고 한다.

史書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法興王代에도 있었던 源花를 폐지하고 대신 花郎을 둔 것이 眞興王代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文⑤에서는 “이에 앞서 法興大王께서 魏花郎을 사랑하시어 그를 ‘花郎’이라 이름불렀다. ‘花郎’이란 이름이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여, 眞興王代에 只召太后가 源花制를 폐지하고 대신 花郎制를 설치하였으나, ‘花郎’이란 명칭의 유래를 밝히면 法興王이 魏花를 ‘花郎’이라 부른 데서 찾을 수 있음을 밝혔다. 魏花郎은 그 이름이 魏花였다. 여기에 사내를 나타내는 接辭인 ‘郎’을 붙여 ‘魏花郎’이 되겠으나, 이를 愛稱으로 불러 ‘花郎’이 되었는데, 이 ‘花郎’이 一般化되어 普通名詞로 굳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다. ‘花郎’이란 어휘의 유래를 밝히면 法興王이 ‘魏花’를 愛稱하여 ‘花郎’이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文⑤ 文④는 花郎에 대한 설명문이다.

文⑥은 文①에 연결된다. “옛날 仙徒는 神을 받들음 주로 하였는데, 國公이 그 일을 돌아다니며 한 뒤로는 仙徒들은 道義로 서로 勸勉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仙徒의 하는 일이 바뀌었음을 설명해 준다. 中國側 기록으로는 隋의 文帝가 처음으로 功臣을 國公에 封했다고 하였고, 唐의 官爵에는 九 등이 있는데 國王, 郡王의 다음으로 그 세째가 國公이라 하였다. 이 『花郎世紀』에서는 法興王이 國公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時以副君之子 位在國公 而寵不及焉。

刻臣公曰 國公下拜于汝者 欲以汝爲臣也。

今王老 國公有大望 汝其事之。

法興大王 以國公入百濟 與寶果公主有私.

後寶果逃歸入宮 生南毛 毛郎 皆有美色.

이처럼 法興王은 王位에 오르기 앞서 國公으로 이웃 나라 百濟에까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데, 神宮에서의 奉神뿐만 아니라 혹 五嶽三山の 神에까지 奉祀한 것이 國公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南解王代의 阿老와 같은 일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文⑦은 文⑥에 맥이 이어지지만 花郎과 기능이 바뀐 仙徒를 일치시켜 주고 있다. “이에 賢佐忠臣이 이에서 빠져나고 良將勇卒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花郎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三國史記』의 〈金欽運傳〉에서 논하기를,

新羅 사람들은 知人할 수 있는 방법 없음을 걱정하여, 類聚 群遊케 하여 그 行義를 본 뒤에 천거하여 쓰고자 하였다. 드디어 美貌의 男子를 가려 꾸며서 花郎이라 이름하여 받들었다. 徒衆들이 雲集하여 혹은 道義로 相磨하고 혹은 歌樂으로 相悅하여 山水에 遊娛해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써 그 人間됨의 邪함과 正함을 알아 가려서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러므로 金大問이 이른 바 「賢佐忠臣이 이로써 빠져나고 良將勇卒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三代의 花郎이 무려 2백여인이나 되고 芳名 美事는 다 傳記에 있는 대로이다.

라고 하여, 文⑦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世俗事에서 벗어나 다만 奉神을 爲主하던 仙徒들이 國公에게 그 奉神의 일마저 넘겨 주고는 道義로써 相勉함에 그 이름조차 花郎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결과 賢佐忠臣과 良將勇卒의 人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으니, 이러한 花郎들의 역사를 알아야 하겠으므로 이 『花郎世紀』를 저술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이 序文이라 하겠다. 그러나 現傳하게 된

이 책은 뒷부분이 없어져 버렸으니 第15世 風月主 庚信으로 끝나는 것인데, 더 이어지는 것인지는 알수 없고, <金欽運傳>에서는 “三代花郎無慮二百餘人”이라 한 ‘花郎’과 ‘風月主’가 일치되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또 이 책의 末尾에는 아마도 撰述者가 署名되었을 것이나 뒷부분이 없었으니 그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賢佐忠臣”云云으로 보아 金大問의 『花郎世記』以後의 著作일 것이다.

3

序文에서 花郎이란 명칭이 魏花郎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음과 같이 이 『花郎世記』의 冒頭를 장식하는 자가 第1世風月主로서의 魏花郎이다.

① 魏花郎者 剡臣公子也. 母曰碧我夫人.

② 以母寵爲毗處王摩腹子 世所謂摩腹七星也

阿時公 父曰善牟 母曰寶兮.

守知公 父曰伊欣 母曰俊明.

伊登公 父曰叔欣 母曰洪壽.

菩宗公 父曰阿珍宗 母曰寶玉公主.

比梁公 父曰比知 母曰妙陽.

彤吹公 父曰德智 母曰加耶國彤彤公主.

或曰 法興大王居七星之首.

魏花郎則 以母微不參云 而七星錄及寶兮記 皆無伊登公 載魏花公則 未詳孰是也.

③ 公面如白玉 唇若赤詣 明眸皓齒 談下生風.

④ 碧我夫人在捺已 生一女 乃毗處后碧花夫人也. 碧花夫人入宮 而公以私弟入有寵.

⑤ 法興大王 時以副君之子 位在國公 而寵不及焉. 阿時公乃勸大王下拜于公.

公告于剡臣公 剡臣公曰 國公下拜于汝者 欲以汝爲臣也. 今王老 國公有大望 汝其事之. 公乃詣爲臣 事多稱旨 法興曰 吾鄧通也.

- [6] 未幾 毗處果崩 智證大王即位 以法興爲太子 公勸碧花后事太子 生女 是曰三葉宮主也. 時太子妃保道夫人乃毗處女而無寵. 保道之弟吾道者 妙心私通 善兮后而生者故 甚美 有寵於太子 媚于三葉 而深結于公 潛通焉 乃生玉珍宮主. 太子知之 以吾道賜阿時公 以碧花賜比梁公 乃寵正妃保道夫人 黜公疎之.
- [7] 雖然 保道德之 請于智證大王 封于天柱而主祀. 延帝太后亦幸之 及玉珍入幸 乃復如初寵之 遂居伊瀟之位. 玉珍專寵 法興使保道爲尼 以公爲臣 以故只召太后當國 而置花郎 以公爲其首 號曰 風月主.
- [8] 只召者保道女也 爲立宗公夫人 生眞興大王 而法興大王愛玉珍宮主 無立意. 只召憂之 公乃曉大義于玉珍 而立之. 時人莫不義之. 以此思道太后亦無事公之德大矣.
- [9] 公之子孫甚繁 長女玉珍宮主 次女金珍夫人 乃吾道夫人生也. 玉珍初嫁英夫 公 未幾 受幸于法興大王 生比臺公. 大王欲立爲太子 公諫之曰 臣女無骨品 而且英夫混處 恐未可也. 法興崩 只召太后降比臺公王子位 以奉公祀. 比臺公女開元宮主事銅輪太子有子.
- [10] 公子二花郎 乃俊室夫人生也. 俊室者守知公妹也 慈悲王外孫也. 有美色善文章 初爲法興大王後宮 無子 歸于公而生 亦貌美善文章. 只召太后寵愛之 常侍左右 太后女叔明宮主悅之 逃出生子 是爲圖光祖師 我東方大聖人也. 圖光之弟曰 菩利沙門 即予曾祖也.
- [11] 贊曰 花郎之祖 沙門之禰 青我之孫 碧我之子 在地則仙 在天則佛 圓滿常住功德無缺.

위에 옮겨 놓은 것이 <魏花郎>의 全文인데, 이것을 11文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에서는 魏花의 系出을 말하여 “剡臣公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碧我夫人이라 한다.”고만 설명해 밝혔다. <贊>에서 “青我之孫 碧我之子”라

한 것으로 보면 剡公의 上代에 靑我が 있었을 것이나 그의 來歷 또한 잘 알 수 없고, 法興王이 魏花의 딸 玉珍에게서 낳은 아들 比臺公을 太子로 삼으려 함에 魏花가 그것이 不可함을 諫하여 “臣女無骨品 而且英失混處 恐未可也”라 한 것으로 보아 新羅의 朝廷으로 보아서는 보잘 것 없는 家門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인 碧我夫人 또한 [4]에서 “碧我夫人在 捺已”라 한 바와 같이, ‘捺已’가 ‘奈已’로 지금의 榮州地方이라 한다면 원래는 高句麗의 領土였으니 新羅의 朝廷으로 보아서는 遐方의 한 女人이었다. 그리하여 魏花가 毗處王의 摩腹七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魏花郎則 以母微不參之”이라 하여 그 어머니가 寒微한 存在였음을 밝혀 준다. 이 『花郎世紀』의 著述이 魏花의 五代孫에 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魏花는 그 父母의 두 家門으로 보아서 寒微한 出身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魏花가 毗處王(479년에 王位에 오른 第21代 炤知麻立干)의 摩腹七子 가운데 曄으로 新羅의 朝廷에 들어서게 된다.

- [2] “(毗處王이) 魏花의 어머니를 사랑하였으므로 魏花는 毗處王의 摩腹子가 되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 摩腹七星이다. 그 七子は ①阿時公, 아버지는 善牟 어머니는 寶兮, ② 守知公, 아버지는 伊欣 어머니는 俊明, ③伊登公, 아버지는 叔欣 어머니는 洪壽, ④荅宗公, 아버지는 阿珍宗 어머니는 寶玉公主, ⑤比梁公, 아버지는 比知 어머니는 妙陽, ⑥彤吹公, 아버지는 德智 어머니는 加耶國의 彤彤公主, 어떤이는 말하기를 ⑦法興大王이 摩腹七星의 우두머리였고 魏花郎은 寒微한 어머니의 出身으로 七星에 들지 못했다고 하나, 七星錄과 寶兮記 둘 다에 伊登公은 없고 魏花公을 실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지 못하다.”

碧我夫人은 捺已의 寒微한 存在라 하였으나 그를 毗處王이 사랑함으로써 그의 아들 魏花가 摩腹子가 되었다고 하였다. 자세히 알 수는 없

지만 后妃들이 美少女를 곁에 거느렸던 것과 같이 王도 곁에 두고 거느렸던 美少年들이 摩腹子인 것 같다. 이를 세상에서는 摩腹七星이라 하였는데, 擧名한 가운데 伊登公과 彤吹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책의 뒷부분에서 魏花公과 血緣 등의 관계를 맺게 된다. 魏花가 花郎이 됨도 法興王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에서 摩腹子가 美少年이라 하였는데, [3]에서 그것이 증명된다. “(魏花)公은 얼굴이 白玉같고, 입술은 붉은 연지를 바른 것 같으며, 맑은 눈동자에 하얀 이로 이야기할 때는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꼭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美少年의 누이도 예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증명된다.

文節 [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4] “碧我夫人이 捺己에서 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毗處后인 碧花夫人이다. 碧花夫人이 宮으로 들어가자 (魏花)公은 그 아우로서 宮中에 드나들어 王의 사랑을 받았다.

‘碧花’와 ‘魏花’라는 名字로 보아서도 이 둘은 親男妹임을 알 수 있다. 곧 劔臣公과 碧我夫人 사이에서 태어난 男妹가 碧花와 魏花이다. 碧花가 毗處王의 눈에 들어 后妃가 됨으로 그의 어머니 碧我和 그의 아우 魏花도 王의 사랑을 받고, 劔臣公도 宮中으로 접근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劔臣公이 圖謀한 일인 것 같다.

『三國史記』에서는 ‘炤知(一云 毗處麻立干은 慈悲王의 長子로 어머니는 金氏로 舒弗邯 末斯欣의 딸이다. 妃인 善兮夫人은 乃宿伊伐飡의 딸이다.’라 하여 毗處王妃를 內宿伊伐飡의 딸 善兮夫人이라 하였으나, 王 22년(A·D 500) 9월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秋九月에 王이 捺己郡에 갔다. 郡人波路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을 碧花라 하고 나이 열여섯에 참으로 國色이었다. 그 아버지 수놓은 비단으로 옷을 입히고 수레에 실어 물색 명주로 덮어 王에게 바쳤다. 왕은 음식인 줄로 알아 열어 보니 敝然한 어린 여인이었다. 괴이쩍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王宮으로 돌아와 잊을 수 없어 再三 微行하여 그 집에 가서 碧花를 맞이했다. 가는 길에 古隨郡(지금의 安東)을 지나치면서 늙은 여인의 집에 留宿하게 되어 묻기를 “요즘 사람들이 國王을 어떤 임금이라 하오.”라고 하였더니 늙은이 대답이 “못사람들은 聖人이라 하나 쫘만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였다. 왜냐고 물었더니, 듣건데 王은 捺己의 女人을 맞아 두고 여러 번 微服으로 찾아온다 하니 대저 龍이 물고기의 행색을 하면 漁夫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제 王은 萬乘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慎重하지 않으니 이러하고도 聖人이 된다면 누가 聖人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여 王이 듣고는 매우 부끄럽게 여겨 남몰래 그 女人(곧 碧花)를 데려다가 別宮에 두고 아들 하나를 낳았다. 冬十一月에 왕은 죽었다.

捺己郡人 波路의 딸 碧花를 毗處王이 王宮으로 맞이해서 아들 하나를 낳게 했음을 알 수 있는데, 碧花에게 수놓은 비단옷을 입히고 수레에 실어 물색 명주로 덮어 그 아버지 波路가 毗處王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 때 碧花는 나이 열여섯에 참으로 아름다운 國色이었다.

『三國史記』의 이러한 기록은 『花郎世紀』의 내용을 믿게 해 준다. 毗處王은 이러한 일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으로 되나, 碧花의 아우로서 美少年인 魏花도 그로 말미암아 宮中에 出入하여 王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文節5가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 [5] “法興大王은 그 때 副君(태자, 뒤의 智證王을 가리킴)의 아들로 國公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魏花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 阿時公(摩腹七子 가운데 한 사람임)이 이에 (法興)大王에게 권하여 (魏花)公에게 절하도록 하였다. 魏花公이 劾臣公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劾臣公이 “國公이 너에

게 절한 것은 너를 臣下로 삼고자 함이다. 이제 王은 늙었고, 國公에게는 大望이 있으니 너는 그를 섬겨라.”고 말하였다. 공이 이에 나아가 臣下가 되어 섬기는 일이 마음에 썩 들어 法興은 “나에게 鄧通과 같은 존재로다.”고 하였다.

누이로 말미암아 宮中에 出入하여 今上의 총애를 받는 摩腹子가 되고, 곧 王位에 오르게 될 智證의 아들인 法興에게로 닥아가 그의 믿음을 얻게 된다. 사실 毗處王에게는 後嗣가 없어 奈勿王의 曾孫인 習寶葛文王의 아들이오 毗處王의 再從弟인 智證이 太子의 位에 있다가 毗處王이 죽자 64歲로 王位에 올랐다. 그러니 法興이 곧 王位에 오를 것은 너무나 뻔하였다. 그러한 法興이 魏花를 鄧通에 비교하였다. 『漢書』에는 〈鄧通傳〉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鄧通 蜀郡南安人也 以濯船爲黃頭郎 文帝嘗夢 欲上天不能 有一黃頭郎 推上天 顯見其衣尻帶後穿 覺而之漸臺 以夢中陰目求推者郎 見鄧通 其衣後穿 夢中所見也 召問其名姓 姓鄧名通 鄧猶登也 文帝甚悅 尊幸之 日日異 云云 然通無他技能 不能有所薦達 獨自謹身 以媚上而已 上使善相人者相通 曰 當貧餓死 上曰 能富通者在我 何說貧 於是賜通蜀嚴道銅山 得自鑄錢 鄧氏錢布天下 其富如此 云云 及文帝崩 景帝立 鄧通免家居 居無何 人有告通盜出微外 下吏驗問頗有遂 竟案盡沒入之 通家尚負責數鉅萬 長公主賜鄧通 吏輒隨沒入之 一簪不得著身 於是長公主乃令假衣食 竟不得名一錢 寄死人家。

이 〈鄧通傳〉에서 어떤 意味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짐작컨대 꿈에서 본 듯 推上天해 줄 鄧通을 文帝가 寵愛했던 것만큼 魏花를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法興을 鄧通에 비교했을 것이다. 法興이 王位에 오르는데 魏花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라. 魏花의 將來는 이제 法興에 의해 보장되었다.

時間은 흘러 事件이 進展된다. 文節 [6]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⑥ 얼마 있지 않아 과연 毗處王이 돌아가셔서 智證大王이 即位함에 法興으로 太子를 삼았다. 魏花公은 누이인 碧花后를 권하여 太子를 섬기게 하여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三葉宮主라 한다. 이 때 太子의 妃인 保道夫人은 毗處王의 딸이었으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保道の 아우 吾道는 妙心이 善兮后(毗處王后로 保道の 어머니임)와 私通해서 낳은 때문에 매우 아름다와 太子의 사랑을 받았다. 이 吾道가 三葉宮主에게 아첨하고 魏花公에게 깊은 인연을 맺어 몰래 서로 私通하여 玉珍宮主를 낳게 되었다. 太子(法興)가 이를 알고 吾道는 阿時公에게 주고, 碧花는 比梁公에게 주어 버리고, 이에 正妃인 保道夫人을 사랑하고 魏花公을 내쫓아 관계를 멀리 하였다.

法興에게 가까이 닥아간 魏花는 法興이 드디어 太子로 책봉됨에 그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毗處王을 모셨던 누이 碧花를 권하여 太子를 섬겨 모시게 한다. 그리하여 碧花는 法興의 딸 三葉宮主를 낳았다. 그러나 막상 毗處王의 딸로 法興의 正妃인 保道夫人은 太子의 사랑을 잃고 만다.

그런데 妙心이 毗處王妃인 善兮后와 私通하여 낳은 吾道는 保道와는 同母弟가 되는데 매우 아름다와 太子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魏花의 甥姪인 三葉宮主에게 아첨하고 魏花에게 깊이 관계를 맺어 남몰래 서로 私通하여 玉珍宮主를 낳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太子에게 알려져 法興 자신의 女인들이었던 吾道는 阿時公에게, 碧花는 比梁公에게 주어 버리고 正妃인 保道夫人을 사랑하고 魏花公을 내쫓아 멀리해 버린다.

法興에게 가까이 닥아왔던 魏花는 女人们 때문에 내쫓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

阿時公과 比梁公은 다 같이 毗處王의 摩腹子였는데, 阿時公은 碧花와 太子 法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三葉宮主를 맞아 第2世 風月主人 未珍

夫公을 낳게 되고, 比梁公은 碧花를 얻어 仇利知를 얻었는데, 이 仇利知는 第5世의 風月主가 된 斯多含의 아버지이다. 이들 末珍夫와 斯多含은 魏花와 血脈이 이어지는 姻戚의 관계에 있다.

太子 法興에게 닥아갈 믿음과 직위를 얻었던 魏花가 이처럼 내쫓김의 危機에 逢着했으나 다시 그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

- [7] 비록 그러하나 保道夫人이 魏花에게 덕을 입어 智證王에게 請하여 魏花를 天杜寺에 封해 祭祀를 주관케 하였다. 延帝太后도 또한 그를 다행히 여겼고, 玉珍이 총애를 받게 되자 法興은 처음과 같이 그를 사랑하여 드디어 魏花는 伊滄의 位階에 오르게 되었다. 玉珍이 사랑을 독차지하며 法興은 保道夫人으로 여승이 되게 하고, 魏花를 臣下로 삼았다. 이 때문에 只召太后(眞興王의 母后)가 國政을 맡고 花郎을 등에 魏花를 그 우두머리로 삼고, 이 우두머리를 일러 風月主라 하였다.

保道夫人이 덕을 입었다는 것은 太子의 곁에서 사랑을 빼앗아간 吾道와 碧花를 내쳐 버리고 法興이 正妃 保道를 寵愛하게 된 이유가 魏花와 吾道の 潛通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智證王妃였던 延帝太后가 다행히 여긴 것도 太子의 正妃가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王位를 이어갈 後嗣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法興王의 곁에는 女人들이 많았다. 毗處王女인 正妃 保道夫人, 保道夫人의 어머니요 毗處王后인 善兮后와 妙心이 私通해서 낳은 吾道夫人, 慈悲王의 外孫이요 守知公의 妹인 俊室夫人, 百濟의 寶果公主, 毗處王의 後宮이었던 碧花夫人, 魏花와 吾道가 潛通하여 낳은 玉珍官主들이 그들이다. 이들에게 사랑을 빼앗긴 先王의 딸로서 正妃인 保道の 처지는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한 保道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거기다가 딸인 玉珍이 入幸함에 魏花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新羅의 17官等中 第2等인 伊滄의 身分을 획득하여 그의 身分은 公認된

다. 여기에 더하여 그의 딸 玉珍이 專寵함에 保道마저 여승으로 내치고 臣下로서의 官爵도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 保道夫人의 딸이요, 法興王의 아우인 立宗의 夫人이며, 眞興王의 母后인 只召太后가 攝政하여 花郎制를 설치함에 魏花는 그 우두머리인 風月主가 된다. 그는 新羅 最初의 風月主가 된 것이다. 毗處王時에 宮中에 出入하여 40여년만에 風月主가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花郎世紀』의 序文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我國은 女子로 源花를 삼았는데, 只召太后가 그것을 폐지하고 花郎을 두어 國人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였다.”하여, 以前에 있었던 源花를 없애고 花郎을 두었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그런데 바로 이어 “이에 앞서 法興大王이 魏花郎을 사랑하여 그를 ‘花郎’이라고 불렀다. ‘花郎’이란 이름은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花郎이란 이름이 생긴 것과 花郎을 두었다는 것에 時間이 一致되지 않는다. 아마도 法興王은 魏花를 愛稱하여 ‘花郎’이라 불렀던 것이 점차 普遍化되어 普通名詞가 되었고, 그러한 花郎을 王宮의 側近에 두는 花郎의 制度를 설치한 것이 只召太后였다. 이 只召太后는 그 아들 眞興王이 七歲의 幼沖으로 王位에 오름에 섭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花郎은 毗處王代의 摩腹七星과 같은 存在였을 것이다.

여하튼 ‘花郎’이 魏花로부터 비롯되었고, 花郎制度는 眞興王의 母后인 只召太后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이 花郎制 이전에는 源花制가 있었음을 우리는 確認할 수 있다. 花郎의 우두머리를 風月主라 하였는데, 이는 孝昭王代의 朝廷의 ‘花主’라 한 것과 같다고 하겠다.

魏花郎에 관한 내력은 文節⑦로써 끝났으나, 글은 더 이어진다.

- [8] 只召는 保道(毗處王女요 法興王妃이다.)의 딸로 立宗公(法興王弟)의 夫人이 되어 眞興大王을 낳았으나 法興大王이 玉珍宮主를 사랑하여 太子로

세울 뜻이 없었다. 只召가 그것을 걱정하매 魏花公이 玉珍에게 大義로 깨우쳐 眞興大王을 太子로 세웠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의롭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思道太后(玉珍의 딸로 眞興王妃임) 또한 無事하였으니 公의 德이 크다.

只召太后는 花郎에 관한 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는 法興王의 딸이요 眞興王의 어머니이다. 法興王의 아들에게 王位가 물려진 것이 아니고, 王弟인 立宗의 아들 곧 王의 조카에게 王位가 돌아갔다. 그래서 法興王은 眞興王의 伯父가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法興王에게는 女인들이 많았지만 正妃인 保道夫人에게서는 王子를 얻지 못했다. 保道夫人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이유의 일단이 無子함에 있었던 것 같다. 法興王은 일찌기 國公으로 百濟에 들어가 公主 寶果와 친해 寶果가 新羅로 도망와서 그 사이에서 源花가 된 南毛娘과 第3世 風月主가 된 毛娘을 얻었으나 毛郎을 太子로 책봉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魏花의 딸 玉珍과의 사이에서 比臺公(이 比臺公은 第2世 風月主 末珍夫의 妹 實寶娘主와의 사이에서 秘寶郎을 얻게 되는데, 이 秘寶郎은 第9世의 風月主가 된다.)을 얻어 이를 太子로 책봉하려 하였다. 그래서 다음 文節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魏花가 그것이 大義 아님을 깨우쳐 포기하게 하였다. 比臺公은 魏花의 外孫子가 되는 셈이다. 法興王에 패달려 權力指向의이었던 그가 外孫子の 太子冊封을 저지한 것은 義로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곧 그는 만족하고 그칠 줄을 알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有德人으로 평가 받았던 듯하다. 하기야 眞興王妃인 思道夫人도 魏花의 딸 玉珍이 法興王에게로 가기전에 牟梁里 英失角干과 결혼하여 낳은 딸이니 外孫女인 셈이다.

그리고 [9]에서는 딸네, [10]에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그 子孫의 繁盛함을 나타내었다. 이 책 著述意圖의 일단이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 ⑨ 魏花公의 子孫은 매우 繁盛한데, 長女 玉珍宮主와 次女 金珍夫人은 吾道夫人이 낳았다. 玉珍은 처음 英失公에게 시집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 法興大王의 사랑을 받게 되어 比臺公을 낳았다. 法興大王이 比臺公을 太子로 세우고자 함에 魏花公이 諫하여 “臣의 딸은 骨品도 없고, 또 英失과 같이 살기도 하였으니 마땅치 않을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法興王이 죽자 只召太后가 比臺公에게서 王子의 자리를 빼앗고는 公의 祭사를 받들게 하였다. 比臺公의 딸 開元宮主는 銅輪太子(眞平王의 아버지임)를 섬겨 아들을 두었다.

이 敍述者는 딸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 法興王이 太子로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吾道가 魏花와 潛通하고 있음을 알고 吾道를 阿時公에게 주어 버렸으나 오히려 吾道는 魏花의 딸 玉珍과 金珍을 낳았다.

玉珍은 처음 牟梁의 英失에게 시집가서 弩里夫公, 興道娘主, 思道皇后, 妙道娘主를 낳았는데, 思道皇后는 곧 眞興王妃이다. 그러한 玉珍을 法興이 맞이하여 王子 比臺公을 얻어 太子로 책봉하려 하였으나 반대하는 의견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法興王이 죽자 比臺公은 王子의 자리에 서마져 쫓겨났다. 그러나 比臺公은 實寶娘主에게서 秘寶郎을 얻게 되는데, 이 秘寶郎은 第9世 風月主가 된다.

金珍은 法興王의 아우요 眞興王의 아버지인 立宗과의 사이에서 肅訖宗을 낳았다. 이 肅訖宗은 金庾信의 어머니인 萬明夫人의 아버지다. 金珍은 한편 比梁公과 碧花后 사이에서 태어난 仇利知와 私通하여 兎舍公과 塞達 그리고 斯多舍를 낳았는데, 이 斯多舍이 第5世 風月主가 된다. 金珍은 또 한편 薛成과 관계하여 薛原郎을 낳았는데, 이 薛原郎은 第7世 風月主가 되었다.

- ⑩ 魏花公의 아들 二花郎은 俊室夫人이 낳았다. 俊室은 守知公(毗處王의 摩腹子임)의 누이요, 慈悲王의 外孫이다.

아름답고 文章을 잘하여 처음에는 法興大王的 後宮이 되었다가 아들이 없어 魏花公에게로 가서는 二花郎을 낳았는데, 이 二花郎이 어머니를 닮아 잘 생기고 文章을 잘하여 只召太后가 사랑하여 그가 늘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只召太后의 딸 叔明宮主가 二花郎을 좋아하여 도망해 나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곧 圓光法師로 우리 東方의 大聖人이다. 圓光의 아우는 菩提沙門인데 곧 나의 曾祖이다.

俊室은 慈悲王의 外孫이요, 같은 摩腹子인 守知公의 누이로 美色과 文章이 뛰어나 法興王의 後宮에 들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여 魏花에게로 가서 오히려 아들 二花를 낳게 되었다. 이 二花는 第4世 風月主가 되며, 二花의 아들 菩提도 第12世의 風月主가 되는데, 이 菩提는 圓光法師의 아우가 되며, 아들 禮元을 얻었는데, 이 『花郎世紀』 撰述者の 할아버지가 禮元이고 曾祖가 菩提가 되니, 魏花는 곧 이 『花郎世紀』 撰述者の 五代祖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花郎世紀』는 第1世 風月主인 魏花郎의 五代孫에 의해 撰述된 것이다.

『三國史記』의 列傳 金大問條에서 “金大問은 본래 新羅 貴門의 子弟로 聖德王 3년에 漢山州의 都督이 되었다. 傳記 若干卷을 지었으니, 그가 지은 高僧傳 花郎世記 樂本 漢山記는 오히려 남아 있다.”고 한 金大問 『花郎世紀』와는 別個의 『花郎世紀』가 존재함을 알겠다. 法興王 37年條에 “金大問花郎世記”曰 賢佐忠臣從此而秀 良將勇卒由是而生”이란 句節에서 “賢佐忠臣” 以下の 文面이 이 『花郎世紀』의 序文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처럼 同一한 文面이 서로다른 文獻에 나타남은 오히려 예사스런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文獻 자체가 同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마지막에는 아마도 이 『花郎世紀』의 撰述者가 지은 것인 듯한 〈贊〉을 붙여 두었는데, 이 贊은 다른 史書에서와 같이 그 人物의 行蹟을 論評한 史贊이 아니고, 다만 그 人物의 功德을 稱頌한 人物贊이다.

Ⅱ 花郎의 할아버지요 沙門의 아버지,
 靑我의 손자요 碧我의 아들.
 地上에선 신선이요 하늘에선 부처님.
 늘 圓滿하였으며 功德에는 조그만 흠도 없었네.

이 〈贊〉에서 魏花를 靑我의 孫子요 碧我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가 剡臣公과 碧我夫人 사이에서 태어났음은 글 첫 머리에서 밝혀 두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碧我임은 本文에서 밝혀 알 수 있으나 靑我는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데, 이 『花郎世紀』의 첫 장 上段에 누군가에 의해 記入된(撰述者의 것은 아닌 듯함) ◎ 世系에 魏花系라 하여

奈勿王^{保反} —— 美海^{靑我} —— 白欣公^{助里} —— 剡臣公^{碧我} —— 魏花郎公

이라 圖示해 두었다. 이를 보면 奈勿王과 保反夫人 사이에 태어난 美海가 靑我夫人을 얻어 白欣公을 낳고, 이 白欣公의 아들이 剡臣公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靑我夫人은 魏花의 曾祖母가 되니 魏花를 “靑我之孫”이라 함에는 잘못이 없다.

奈勿王과 保反夫人의 사이에서 訥祗王이 태어 났음은 『三國史記』에서 “訥祗麻立干 奈勿王子也. 母保反夫人(一云內禮吉佈) 味鄒王女也”로 확인 되는데, 이 訥祗王의 두 아우 未斯欣(美海)과 卜好(寶海) 가운데 未斯欣이 곧 美海이다. 이 美海는 實聖王 元年에 倭國과 通好하기 위하여 倭國에 質子로 보내졌다가 그 兄인 訥祗가 (實聖王이 訥祗를 謀害하

로) 實聖王을 弑殺하고 王으로 自立하던 해에 朴堤上의 도움으로 倭國으로부터 逃還했다.

이 美海의 逃還事件에 대하여 一然은 『三國遺事』의 권2 奈勿王 金堤上條에 자세히 적고 있는데 그 末尾에

美海는 바다를 건너 와서 康仇麗로 하여금 먼저 나라에 알려라 하였다. 王은 놀랍고 또 기뻐해서 百官들로 하여금 屈歇驛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王과 친동생 寶海는 南郊에서 맞이해 대궐에 들어와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大敕令을 내리며, 堤上의 아내를 國大夫人으로 책봉하고 堤上의 딸로서 美海公의 夫人으로 삼았다.

라고 했으니 아마 靑我는 堤上의 딸인 것이다.

堤上에 대해서는, 訥祗王이 高句麗와 倭國에 實聖王에 의해서 質子로 보내진 두 아우를 救出해 오려 할 때, 百官들이 다 같이 奏한 말 “이 일은 진실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智慧와 勇氣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臣들로서는 靑羅郡太守 堤上이라야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데서 그가 智勇을 겸비한 靑羅郡의 太守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의 列傳 朴堤上條에서는

朴堤上은 新羅始祖 赫居世의 후예로 婆娑尼師今의 五世孫이고, 그 祖父는 葛文王 阿道이고, 父親은 波珍濱 勿品이었다. 朴堤上은 벼슬이 靑良州(梁山)주이 되었다.

고 하였고, 또 朴堤上의 죽음을 안 訥祗王은 크게 슬퍼하며 그에게 大阿濱의 벼슬을 추증하고 아울러 그 가정에도 후한 상을 주고, 末斯欣에게 朴堤上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美海와 朴堤上의 둘째 딸(靑我로 추정됨) 사이에 태어난 白欣

公이 魏花의 할아버지가 됨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奈勿王系의 王孫이면서 그의 딸 玉珍을 “無骨品”이라고 말하거나, 이 『花郎世紀』의 撰述者가 魏花의 어머니 碧我를 寒微한 身分이라 하였을 까닭이 없겠기 때문이다. 圖示한 世系에서는 누군가가 魏花를 王孫에 잇대어 놓았으나, 오히려 魏花家門의 女性들을 드러내려 한 것 같다.

한편 魏花를 花郎의 할아버지요 沙門의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예로서 圓光이나 薛原, 菩利와 같은 佛僧이 있었고, 이 『花郎世紀』의 15명의 風月主 가운데, 第3世 毛郎, 第6世 世宗, 第8世 文弩, 第14世 虎林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魏花의 血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第15世 風月主인 金庚信의 경우에도 그 어머니인 萬明夫人은 肅訖宗과 萬呼太后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이 肅訖宗은 法興王의 아우 立宗과 魏花의 딸 金珍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疑問을 제기할 수 있다. 第15世까지의 風月主의 世紀를 왜 花郎의 世紀라고 題名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花郎과 風月主는 그 명칭이 포괄할 수 있는 範疇가 다르다.

『三國遺事』의 融天師彗星歌條에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 第七寶同郎等 三花之徒欲遊楓岳……”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 때의 ‘三花’는 ‘三花郎’의 줄임일 것이고, 이 『花郎世紀』에도 ‘弩里夫公乃思道之兄也 與美室之夫世宗公 將舉大事 恐文弩之徒不服 以太后命合兩徒爲一 復奉美室爲源花 世宗爲上仙 文弩爲亞仙 薛原秘寶爲左右花郎 美生爲前方花郎 以鎮之”라 하여 左花郎 右花郎 前方花郎을 말하였다. 文弩도 風月主가 되기 전에 私徒를 거느렸고, 斯多舍나 그의 친구 武官郎도 私徒를 거느린 花郎이었다. 그러나 斯多舍만 風月主가 되었다. 『三國遺事』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竹旨郎은 郎徒 138명을 거느린 花郎이었는데 朝廷에는 風月主로 보이는 ‘花主’가 따로 있었다.

그렇다면 이 『花郎世紀』는 오히려 “風月主世紀”여야 할 터인데,

“花郎世紀”임은 그냥 ‘花郎’이라고 法興王에 의해 愛稱되었던 第1世 風月主가 된 魏花郎의 世代紀이기 때문에 그저 “花郎世紀”라고만 題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金大問의 『花郎世記』에 있다는 芳名과 美事가운데 적어도 ‘美事’에 해당하는 것을 이 『花郎世紀』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後續)